

신산국 삼대왕 적선복시도령 조부금 노태옷도.¹⁾ (큰당한집)

베롱개²⁾ 해신당(海神堂) 서질 우의³⁾ 서당할망 황토부인.⁴⁾

옛날 황토고을 황정심대왕(黃政丞大王) 스십(四十)까지 살아도 조식이 었어지니, 동개남(東觀音寺) 은중절(恩重殿) 두일래 열나을 불당(佛堂) 수록(水陸齋)을 올리는다, 송낙지⁵⁾ 구만장(九萬張) 가사지(袈裟地) 구만장 상백미(上白米) 일천석(一千石) 중백미 일천석 백근건량(百斤斤量) 저울려⁶⁾ 수록(水陸)을 드리난 대스(大師)님이 말하기를,

“백근(百斤)이 차시민⁷⁾ 아들조식 체급(處給)할 걸, 백근이 못내차 예궁예(女宮女)⁸⁾ 체급힙네다. 이 아기 낭⁹⁾ 일곱설이 돼거든 우리 절당[寺堂]의 다시 수록 한번 읊서.”

절당 하직허연 노려완¹⁰⁾ 하궁일(合宮日)을 받아네 천상배포(天上配匹) 무으니¹¹⁾ 예궁예(女宮女)가 솟아난다.

이 아기 일곱설이 됐연 절당[寺堂]의 수록(水陸) 가젠 하느디 정승판서(政丞判書) 살레 오랜 펜지답장(便紙答狀) 오랏구나.¹²⁾ 일곱설 난 아기가,

“나도 훈디 가오리다.”

“남조자식(男子子息) 7뜨민 책실(冊室)로나 7랑 거주마는¹³⁾ 예조조식(女子子息)이라 할 수 웃다.”

버려두고 가니, 아바님 탕 가는 가매 염부출¹⁴⁾ 돌환 가단¹⁵⁾ 묵은 각단 새 각단밧디¹⁶⁾ 간 아바님 탕 가는 가매 염부출 못 보니, 비새 7찌 우는 것이 구렁이 몸으로 환생텐다.

어멍[母]은 똥애기가 간간무중¹⁷⁾ 허난 아바님신디 펜지답장(便紙答狀)하기를,

“똥조식 소식 엇습네다. 정승판서(政丞判書) 그만 살앙 노려옵서.”

아바님은 펜지(便紙) 받고 ‘이게 어떤 일일런고’ 불급시리¹⁸⁾ 노려오느디, 묵은 각단 새 각단밧디 오난 난디 웃인 대(大)구렁이가 가매 염부출에 감아지니, 앞의 샷단¹⁹⁾ 지동토인(妓童通引)이,

“양반(兩班)이 행(行)하느디 왜헌 짐승이 눈하[目下]에 베이느냐?”

후욕(詬辱)하느니, 구렁이는 었어지고, 집의 돌아오란 아기씨 녹단²⁰⁾ 방안을 올안 보니²¹⁾ 대구렁

1) 노태옷도 : 이상 월정리(月汀里) 큰당의 신명(神名)들.

2) 베롱개 : 월정리 해변의 이름.

3) 서질 우의 : 길 위에. ‘서-’는 서당할망에 맞춘 조운음(調韻音).

4) 황토부인 : 신명(神名).

5) 송낙지 : 고깔을 만들 감.

6) 저울려 : 저울로 달아.

7) 차시민 : 찻으면(滿).

8) 예궁예(女宮女) : 여자아이를 일컬음.

9) 낭 : 낱아서.

10) 노려완 : 내려와서.

11) 무으니 : 맺으니까 뜻.

12) 오랏구나 : 왔구나.

13) 7랑 거주마는 : 데려가지만.

14) 염부출 : 가맞대. ‘-염-’은 관용 조운음(調韻音).

15) 돌환 가단 : 따라가다가.

16) 각단밧디 : 띠발에.

17) 간간무중 : 간간무례와 같음. 간데온데 없이 사라져 버림.

18) 불급시리 : 불급(不及)시리. 곧 매우 급하게.

19) 샷단 : 섰던(立).

20) 녹단 : 놓던.

21) 올안 보니 : 열어서 보니.

이가 굵이굵이 사련 누었구나.

무쇠설각[鐵石匣]쟁이 불러다 무쇠설각을 지어놓고 무쇠설각 쏘굽에²²⁾ 담안 요왕황제국(龍王皇帝國)의 띠와부난 물알에도 삼년(三年)이여, 물 우희도²³⁾ 삼년이여, 황당망당²⁴⁾ 떠덩기단 뒷개[北村] 복덕개에²⁵⁾ 올라시난²⁶⁾ 짐참지(金僉知) 영감은 새뻬²⁷⁾ 불락²⁸⁾ 나그레 복덕개에 느려가 보니 무쇠설각이 올라시난 ‘은(銀)이 들어신가 금이 들어신가’ 돌맹이 좇어다네²⁹⁾ 부실란 보난³⁰⁾ 대구랭이 들어누어. 주악하게³¹⁾ 놀래연게³²⁾ 똥 삼형제안티 열두 송엄[十二凶驗]을 주난 짐참지 영감(金僉知令監) 똥 삼형제 일시(一時)에 아파간다.

짐참지 영감이 문복단점(問卜斷占) 지레 가난.

“손으로 문직은³³⁾ 쥬상(罪狀)이우다.”

복덕개에 간 훈 말을 훈난.

“그걸 잘 위허여사 뉘쿠다.”³⁴⁾

집의 오란³⁵⁾ 안싼노기³⁶⁾ 토용칠판(統營漆盤)을 चल्ल दे접(待接)허여가난, 훈 상[一床] 먹고 훈 숨 쉬니 큰똥애기 살아나고, 두 상 먹고 두 숨 쉬니 셋똥애기[次女] 살아나고 식상[三床] 먹고 식 숨 쉬니 작은똥애기[末女] 살아난다.

“내게 테운³⁷⁾ 조상(祖上)이건 좌정(坐定)홀 디로 좌정흡서.”

뒤³⁸⁾으로 간 감낭[柿木] 베낭[梨木] 정굴(正橘) 도실낭[桃實木] 알로 진궁좌정헤야³⁹⁾ 그 날 밤 인 생인(生人)으로 환싱(還生)하고, 남방스주(藍紡絲紬) 봉애바지⁴⁰⁾ 북방사주(白紡絲紬) 저구리 열두복⁴¹⁾ 개옹당⁴²⁾ 훗단치메⁴³⁾ 둘러입고 문복단점(問卜斷占) 지난⁴⁴⁾ 제주 남방국 신산국이 천상베 필(天上配匹) 뉘다 허여, 신산국을 좇젠⁴⁵⁾ 할로영주산(漢拏瀛洲山) 관데청(觀德亭)⁴⁶⁾ 마당으로 7 으니뉘를⁴⁷⁾로 신촌(新村) 열녀문(烈女門)으로 조천(朝天) 군선돌⁴⁸⁾로 함덕(咸德) 스레물⁴⁹⁾로 뒷개[北村] 정지폭낭 알로⁵⁰⁾ 월정(月汀) 비석거리⁵¹⁾ 완 쉬엄시니,⁵²⁾ 신산국은 개동여리⁵³⁾ 사농허레⁵⁴⁾

22) 쏘굽에 : 속에.

23) 우희도 : 위에도.

24) 황당망당 : 흥당망당과 같음. 물에 오래 담겨져 있는 모양.

25) 복덕개 : 북촌리(北村里) 포명(浦名).

26) 올라시난 : 올라 있으니.

27) 새뻬 : 새벽.

28) 불락 : 불락.

29) 좇어다네 : 주워다가.

30) 부실란 보난 : 부수어 보니.

31) 주악하게 : 놀라서 멈칫하는 모양.

32) 놀래연게 : 놀라던데.

33) 문직은 : 만진.

34) 뉘쿠다 : 되겠습니다.

35) 오란 : 와서.

36) 안싼노기 : ‘안싼’은 지명(地名)인데 미상. ‘노기’는 늦그릇.

37) 테운 : 내리어진의 뜻.

38) 뒤 : 집 뒤의 공지(空地)를 뜻함.

39) 진궁좌정 : 정궁좌정(定宮坐定).

40) 봉애바지 : 솜을 넣은 바지.

41) 열두복 : 열두폭.

42) 개옹당 : 대홍단(大紅緞)의 잘못.

43) 훗단치메 : 훗치마.

44) 지난 : 지으니. 치니.

45) 좇젠 : 찾자고. 찾으려고.

46) 관데청(觀德亭) : 제주시 중심에 있는 고적(古蹟).

47) 7 으니뉘를 : 제주시 동문 밖의 고개 마루.

48) 군선돌 : 조천면 조천리(朝天面朝天里)의 지명.

49) 스레물 : 조천면 함덕리(咸德里)의 지명.

올라가단 보난 곳 ㄱ튼 애기씨가 앓았더라. 남즈(男子)의 기십⁵⁵⁾으로 부른 말⁵⁶⁾이나 헤여 보자.

“어디 가는 애기썩네까”

신산국을 좇는 말을 하니,

“나가 신산국입네다.”

양단홀목⁵⁷⁾ 비여잡고⁵⁸⁾ 서당머체⁵⁹⁾에 간 좌정허여 천상배필(天上配匹) 뵈데다.

신산국은 사농허젠 할로영주산(漢拏瀛洲山)을 든다 난다 하고 서당할마님(황정승 따님)은 아긴 나는 건 일곱아기 솟아난다.

걷는 애긴 걸름고⁶⁰⁾ 어린 애긴 업고 기는 애긴 안고 허연 무주⁶¹⁾ 월정(月汀) 앞동산 동기잔 치⁶²⁾ 귀경(求景)하고 올라가단 도치자국⁶³⁾ 물 골라시난⁶⁴⁾ 그 물을 빨아먹는 게 돛지술이⁶⁵⁾ 코에 박아지난, 빠내연 기시리고⁶⁶⁾ 손바닥에 낀⁶⁷⁾ 비비연 먹은 게 괴기[肉] 먹은간 찌간 한다.

집의 완 앓아시난 신산국은 사농허여⁶⁸⁾ 들어오란,

“부인님아, 어찌허여 깔또지⁶⁹⁾ 동경내⁷⁰⁾가 등성(登盛)홉네까?”

“돛술⁷¹⁾ 기시련 먹었수다.”

“양반(兩班)의 부인(婦人) 노릇 못홀로고나 땅과 물을 갈를건디 양새예⁷²⁾ 즈식이 있기로 땅과 물은 못 갈르나 자리나 갈랑 삽서. 어서 서당머체로나 갑서.”

신산국이 일곱애기 거느리고 서당머체 ㄷ란 가네.⁷³⁾

“생사름[生人] 보기엔 엉덕⁷⁴⁾ 수덕⁷⁵⁾ ㄱ뜨고 그만허민 좌정홀 만허우다.”

신산국이 하는 말이,

“이제랑 ㅅ덥[八]의 새끼[母子]가 좌정(坐定)홉서.”

허여두고 기냥⁷⁶⁾ 훗기⁷⁷⁾ 나오젠 하난, 스모관뎃습⁷⁸⁾을 심으멍⁷⁹⁾,

50) 정지폭낭 알로 : 정자(亭子) 팽나무 아래로.

51) 비석거리 : 월정리의 지명(비석이 있는 거리).

52) 쉬엄시니 : 쉬고 있더니.

53) 개동여리 : 동이 틀 무렵. 일찍의 뜻.

54) 사농허레 : 사냥하러.

55) 기십 : 기습(氣襲). 기개(氣概)의 뜻.

56) 부른 말 : 부르는 말.

57) 양단홀목 : 양단(兩端) 팔목. 두 팔목.

58) 비여잡고 : 덥석 잡고.

59) 서당머체 : 월정리(月汀里)의 지명. 당(堂)이 있는 곳.

60) 걸름고 : 걸리고.

61) 무주 : 월정리의 속칭 무주에.

62) 동기잔치 : 환갑(還甲)잔치.

63) 도치자국 : 돼지 발자국.

64) 골라시난 : 괴어 있으니.

65) 돛지술 : 돼지 털.

66) 기시리고 : 그을리고.

67) 낀 : 놓아서.

68) 사농허여 : 사냥하여.

69) 깔또지 : 칼도=刀. 지=之. 칼로 잡았다는 뜻의 관용인 듯.

70) 동경내 : 종경내. 곧 소나 돼지 따위의 불알을 끊어낸 것에서 나는 냄새.

71) 돛술 : 돼지털.

72) 양새예 : 둘의 사이에.

73) ㄷ란 가네 : 데리고 가서.

74) 엉덕 : 바위(岩).

75) 수덕 : 바위가 낭떠러지처럼 비스듬히 된 것.

76) 기냥 : 그대로.

77) 훗기 : 핵. 망설이지 않고 시원스럽게 나오는 모양.

78) 스모관뎃습 : 사모관대(紗帽冠帶) 씌.

79) 심으멍 : 잡으며.

“나 살을 도례(道理)도 마련하여 뒹 갑서.”

신산국이 말을 하되,

“마은으뜸[四十八] 상단골(上丹骨) 서른으뜸 중단골 쑤물으뜸[二十八] 하단골 굽어봅서. 열두부술[十二符術]은 뉘당⁸⁰⁾ 뒹에 쓸거우까?”

마은으뜸 상단골에 머리 두통(頭痛)도 불러준다. 서른으뜸 중단골에 상토하토(上吐下吐)도 불러준다. 쑤물으뜸 하단골에 배아피[腹痛]도 불러준다.

단골덜이 하도 답답하난 문복단점(問卜斷占)지니,

“서당할마님 조화(造化)우다. 돛젯법[豚祭法]을 설연흡서.”⁸¹⁾

신산국은,

“상반(上盤)은⁸²⁾ 두개예, 애기 직신⁸³⁾ 일곱반, 동편시왕머들⁸⁴⁾ 직시도 혼반, 올레⁸⁵⁾ 시녕하지⁸⁶⁾ 직시도 혼반 시녕성방⁸⁷⁾ 직시도 혼반 열두반 설반(設盤)을 받읍서.”

허여 두고, 당커릿당⁸⁸⁾으로 오명 하는 말이,

“정월 열나을날[十四日]랑 아이덜 ㄷ랑 읍서⁸⁹⁾ 대제일(大祭日)이나 ㄱ찌 받게.”

일러두고, 무주⁹⁰⁾ 월정(月汀) 느려오란,⁹¹⁾

“꺄동장⁹²⁾을 불르라. 놀소미⁹³⁾를 불르라. 상다잡이⁹⁴⁾ 중다잡이 하다잡이 불르라.”

허여, 선들 구뭉 계탁하고⁹⁵⁾正月 열나을 대술름대제일⁹⁶⁾ 받고,

서당할마님은 좌정(坐定)헌 디 좌정허여 유월 초으드레[初八日] 여레드레[十八日] 쑤무으드레[二十八日], 시월(十月) 초으드레 여레드레 쑤무으드레 제일(祭日) 받아옴던 서당할마님.

- 舊左面 杏源里 男巫 李仲春 口誦

당신은 신산국 삼대왕 적선복시도령 자부금 노태웃도입니다. 배롱개 해신당신은 길 위의 서당 할망 황토부인입니다.

옛날 황토고를 황정승대왕이 사십까지 살아도 자식이 없으니, 수덕이 좋다는 동개남 은중절에 가서 두 이레 열나흘 동안 불당에서 수륙재를 올리기로 합디다. 송낙지도 구만장, 가사지도 구만장, 상백미도 일천석, 중백미도 일천석을 차리고 백근근량을 달아서 동관음사에서 수륙불공을 드리니, 대사님이 보시를 달아보고 말하기를,

80) 뉘당 : 놓았다가.

81) 설연흡서 : 마련하십시오.

82) 상반(上盤) : 웃어른에게 드리기 위해 특별히 잘 나누어 놓은 반기.

83) 직신 : 나시와 같음. 뭇은.

84) 동편시왕머들 : 동편(東便)의 시왕이 좌정한 돌무더기.

85) 올레 : 집에 드나드는 좁은 골목길. 여기서는 당의 올레.

86) 시녕하지 : 신명(神名). 입구를 지키는 신.

87) 시녕성방 : 지키는 심방(神房 : 巫).

88) 당커릿당 : 당명(堂名).

89) ㄷ랑 읍서 : 데리고 오십시오. ‘읍서-하계’의 구문형(構文形).

90) 무주 : 월정리(月汀里)의 속명(俗名).

91) 느려오란 : 내려와서.

92) 꺄동장 : 동장(洞將).

93) 놀소미 : 소무(小巫).

94) 상다잡이 : 백정(白丁)을 일컫는 말.

95) 계탁 : 송년 제명(送年祭名).

96) 대술름대제일 : 제일명(祭日名).

“백근이 찾으면 아들자식을 점지할 것인데, 백근이 못 차므로 딸자식을 점지합니다. 이 아이를 낳고 일곱살이 되거든 우리 법당에 다시 한 번 와서 수륙 불공을 드리십시오.”

황정승은 법당을 하직하고 내려와 합궁일을 골라서 천정배필을 맺었더니 딸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기가 일곱살이 되어서 불당에 수륙 불공을 드리러 가려 하는데, 황정승은 정승판서 벼슬을 살려 오라는 통지를 받습디다. 일곱살 난 아기가,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남자자식 같으면 책실로나 데리고 가지만 여자자식이라 할 수 없다.”

황정승이 딸 자식을 버려두고 가니, 아버님이 타고 가는 가마채를 잡고 따라 가다가 묵은 띠밭까지는 따라갔지만 더 따라가지 못합디다. 띠밭에 떨어져 아버님이 타고 가는 가마채를 보지 못하게 되자 비새같이 울다가 딸은 구령이 몸으로 환생이 됩디다.

어머니는 딸아이가 간데 온데 없이 사라져 버리니 아버님에게 편지하기를,

“딸자식 소식이 없습니다. 정승판서 그만 살고 내려오십시오.”

황정승은 편지를 받고 ‘이게 어떤 일이고.’ 하며 서둘러서 내려오는데, 묵은 띠밭에 오니 난 데 없는 큰 구령이가 가마채에 감아 붙습디다. 앞에 섰던 통인이,

“양반이 행차하는데 웬 짐승이 눈앞에 보이느냐?”

호령을 치니 구령이는 없어지고, 집에 돌아와 아기씨가 눕던 방안을 열어 보니 큰 구령이가 구비구비 서려 누워 있습니다.

무쇠석갑장을 불러다 무쇠석갑을 만들게 하고, 그 속에 구령이를 담아 용왕황제국에 띄워 버리니, 물 아래도 삼년, 물 위에도 삼년, 황당망당 떠 다니다가 뒷개의 복덕개에 떠 오릅디다. 김첨지 영감은 새벽에 불락을 낚으러 복덕개에 내려가 보니 무쇠석갑이 올라와 있어 ‘은이 들었는가 금이 들었는가.’ 하며 돌맹이를 주워다가 무쇠석갑을 부셔 안을 보니 속에는 큰 구령이가 들어누워 있습니다. 김첨지 영감은 멍칫 놀랐는데, 그로부터 김첨지 영감의 딸 삼형제가 일시에 아파갑디다. 구령이가 딸 삼형제에게 열두흉험을 준 것이로구나.

김첨지 영감이 점을 치러 가니,

“손으로 만진 죄상입니다.”

김첨지가 점쟁이에게 복덕개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니,

“그것을 잘 위하야야 되겠습니다.”

집에 와 안산 늦그릇에, 통영칠반에 음식을 잘 차려 대접합디다. 구령이가 한 상 먹고 한 숨을 쉬니 큰딸아기가 살아나고, 두 상 먹고 두 숨 쉬니 둘째딸아기가 살아나고, 세 상 먹고 세 숨 쉬니 막내딸아기가 살아난다.

“나에게 내려진 조상이면 좌정할 곳으로 좌정하십시오.”

집 뒤로 가서 감나무 배나무 굴 복숭아 나무 밑으로 좌정합디다.

그 날 밤에는 이 뱀신이 아기씨로 다시 환생하고, 남방사주 봉애바지 백방사주 저고리 열 두폭 대홍단 홀단치마 둘러입고 점을 쳐 보니, 제주 남방국의 신산국이 천정배필이 된다 합디다. 그러니 아기씨는 신산국을 찾으려고 한라산으로, 관덕정 마당으로, 가으니마루로, 신촌 열녀문으로, 조천 군선돌로, 함덕 사례물로, 뒷개 팽나무정자 아래로 하여 월정 비석거리에 와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신산국은 아침 일찍 사냥하러 올라가다 보니 꽃같은 아기씨가 비석거리에 앉아 쉬고 있습니다. 남자의 기개로 부르는 말이나 건네 보자.

“어디 가는 아기씨입니까?”

신산국을 찾는 말을 하니,

“내가 신산국입니다.”

아기씨는 두 팔목을 덮석 잡고 서당머체로 가서 천정배필을 맺읍디다.

신산국은 사냥하려고 한라영주산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서당할마님(황정승따님)은 아기를 낳는데 일곱아기가 솟아난다.

걷는 아기는 걸리고, 어린 아기는 업고, 기는 아기는 안고 해서 월정 앞동산에 환갑잔치를 구경하고 돌아오다가 돼지 발자국에 물이 괴어 있으니, 그 물을 빨아먹는데 돼지털이 코에 박히니 빼내어 불에 그을려서 손바닥에 놓아 비벼 먹은 것이 고기를 먹은 듯 쓴 듯 합디다.

집에 와서 앉아 있더니, 신산국은 사냥하여 들어와서,

“부인님아, 어찌하여 동경내가 등성합니까?”

“돼지털을 그을려 먹었습니다.”

“양반의 부인 노릇 못하겠구나 땅과 물을 가를 것이로되 둘 사이에 자식이 있기에 땅과 물은 못 가르지만, 자리라도 갈라 삼시다. 어서 서당머체로 가시오.”

신산국이 일곱 아기를 거느리고 서당머체로 데리고 가서,

“산 사람이 보기에는 벼랑같으니 이만하면 좌정할 만합니다.”

신산국이 하는 말이,

“이제는 여덟 모녀가 좌정하시오.”

서당머체를 가리켜 주고 그냥 후딱 나오려 하니, 관대 섶을 잡으면서,

“내가 살 도리도 마련해 두고 가십시오.”

신산국이 말을 하되,

“마흔여덟 상단골 서른여덟 중단골 스물여덟 하단골 굽어 보십시오. 열두 부술은 두었다가 뭇에 쓰려하오?”

이 말 듣고 서당할마님은 마흔여덟 상단골에 머리 두통을 불러주고, 서른여덟 중단골에 상토하토를 불러주고, 스물여덟 하단골에 복통을 불러 줍디다.

단골들이 너무 답답하여 점을 치니,

“서당할머니의 조화입니다. 돼지제법을 마련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돼지 한 마리를 잡아 제사하는 돼지제법이 시작되디다. 신산국은,

“부인에게 올리는 반기는 두 개, 아기 뭍은 일곱 반기, 동쪽 시왕머들의 신 뭍은 하나, 당에 들어오는 입구의 신 뭍은 하나, 당의 심방 뭍도 하나, 이렇게 열 두 반기를 받으시오.”

그렇게 해 두고 당커릿당으로 오면서 하는 말이,

“정월 열나흘날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오. 대제일이나 같이 받으시다.”

이렇게 말해 두고 월정 마을로 내려와,

“동장을 불러라. 소무를 불러라. 상대잡이 중대잡이 하대잡이를 불러라.”

이렇게 하여 선달 그믐날에는 송년제를 받고, 정월 열나흘 대술름대제를 받고, 서당할머니는 신산국이 좌정하라고 한 곳에 좌정하여 유월 초여드레 열여드레 스무여드레, 시월 초여드레 열여드레 스무여드레에 지내는 제를 받읍디다.